

Excepto의 문법 범주에 관하여*

심 상 완
단국대학교

심상완(2015), 'Excepto'의 문법 범주에 관하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초 록 본 연구의 목표는 excepto의 문법범주를 규명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excepto 뒤에 명사가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요소를 전치사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사전과 문법책에서도 excepto를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excepto는 자신의 뒤에 1, 2인칭 단수 대명사가 출현할 경우 사격형이 아닌 주격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전치사들과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는 excepto는 전치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보는 분석은 excepto 뒤에 주격형이 출현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분석 역시 여러 가지 경험적 문제점에 직면한다고 지적한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excepto가 부가어절을 이끄는 보문소라고 주장하고 그럴 경우 전치사 분석과 등위접속사 분석에서 설명치 못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excepto, 전치사, 등위접속사, 보문소

*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스페인어문학회 겨울 학술대회(서울대)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좋은 의견을 주신 세 명의 논평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을 미리 밝힌다.

1. 서론

스페인어 원어민에게는 어떤 어휘 요소의 문법 범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그 어휘의 범주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어휘 뒤에 출현할 수 있는 요소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려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e의 범주가 전치사라는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원어민이라면 de 뒤에 대명사가 출현할 때 그 대명사가 취하게 되는 형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는 de가 전치사 범주에 속하며 전치사 뒤에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출현하는 경우에 사격형 mi가 쓰인다는 것까지 일일이 학습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어휘의 문법 범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학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스페인어 학습자 60명(2학년, 3학년 스페인어 전공자)을 대상으로 excepto의 범주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60명 전원이 전치사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excepto의 범주를 전치사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거의 대다수가 con, para, por 같은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령, excepto {Juan/ mi padre/ ellos})가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필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한국인 학습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excepto의 범주를 전치사로 간주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스페인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반드시 참조하게 되는 사전 또한 excepto를 전치사로 간주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화 된 이후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사전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NAVER 스페인어 사전(<http://spdic.naver.com>)인데 이 사전에서도 excepto의 범주를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조한다고 해서 그 사전의 정확도가 반드시 높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참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전이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게다가 *excepto*를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비단 NAVER 사전만이 아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Real Academia Española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전을 비롯하여 최근 학습자들이 많이 참조하는 Wordreference 온라인 사전, 옥스포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전, María Moliner 사전, Manuel Seco 사전 등 살펴본 모든 사전에서 *excepto*를 전치사로 규정하고 있다.¹⁾ 또한 필자가 살펴본 몇몇 해외 출간 문법서²⁾ 및 국내 출간 문법서³⁾에서도 *excepto*를 모두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사전이나 문법서에서도 *excepto*를 전치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excepto*를 전치사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⁴⁾

*excepto*가 전치사냐 아니냐의 진위 여부를 떠나 *excepto*를 전치사로 본다

-
- 1) 1. <http://www.rae.es>
 2. <http://www.wordreference.com>
 3. <http://www.oxforddictionaries.com/es/espanol/>
 4.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RAE 1992, 930)
 5. CLAVE (SM 1999, 783)
 6. Oxford Span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360)
 7.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María Moliner, Gredos 2013, 441)
 8. Diccionario de dudas y dificultades de la lengua española (Manuel Seco, RAE, 10a edición, 209)
 - 2) 1. A New Reference Grammar of Modern Spanish (Butt, J. and C. Benjamin 1988, 106)
 2. Advanced Spanish Grammar (Marcial Prado 1997, 298)
 3. Gramática comunicativa del español (F. Matte Bon 1995, 275)
 4. Introducción a la gramática del español: Las categorías gramaticales (Burguera Sera et al. 2012, 115)
 5.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Teoría y práctica C1-C2 (Aragónés, L. and R. Palencia 2012, 46)
 - 3) 1. Gramática Española (마상영 2014, 264)
 2. 스페인어 문법 (최종호 외. 2004, 427)
 - 4)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초보자용 교재에서는 *excepto*의 범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가령, 초보자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Dos Mundos와 같은 책에서는 *excepto*의 의미만 제시할 뿐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excepto*의 범주에 대한 학습자들이 갖는 생각은 그들이 자주 참조하는 사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해서 현실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상 회화에서 *excepto*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excepto* {*mi hermano / Pedro*}’처럼 뒤에 보통 명사나 고유명사가 출현하는 경우도 많아서 *excepto*의 범주에 대해 의구심을 던질만한 상황이 그다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1) *Todos salieron del aula, excepto* {*yo/ tú*}

*para, con*과 같은 전형적인 전치사 뒤에 1, 2인칭 단수형 대명사가 출현하게 되면 *yo*와 *tú*가 각각 *mí/-migo, ti/-tigo*로 바뀐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들 중에는 (1)과 같은 문장을 접할 때 *excepto* 뒤에서 *mí, ti*가 아닌 *yo, tú*가 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필자에게 종종 묻곤 한다. 이러한 의문점은 *excepto*를 전치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며 사고력이 있는 학습자라면 당연히 질문을 던져볼만한 사항이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Entre tú y yo lo hicimos todo*’, ‘*Según tú, lo que hizo no tiene ningún valor*’와 같은 예문이 보여주듯이 학습자들이 흔히 전치사⁵⁾로 인식하고 있는 *entre*나 *según* 뒤에서도 1, 2인칭 단수형 대명사가 주격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5) *entre*나 *según* 뒤에서도 주격형 대명사가 출현하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감안한다면 이들도 전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Alarcos Llorach(1994, §284)는 *según*은 강세성(tonicity)을 지니고 있고 홀로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전치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보기에 아래 (ia)에서 보듯이 보문소 *que*의 출현 없이 시제절을 보여로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전형적인 전치사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excepto*의 범주가 무엇이든지 간에 *según*과 *excepto*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이 둘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령, *excepto*와 달리 *según*은 자신의 뒤에 *que* 없는 시제절 출현을 허용한다는 점, 관계절을 이끌 수 있다는 점, 홀로 출현할 수 있다는 점, 강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에서 *excepto*와 큰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cf. Pavón 1999, 588-589; Alarcos Llorach 1994, §284).

- (i) a. Según dice ese profesor, mañana no habrá clase.
- b. La hipótesis según la cual el cerebro de la mujer es diferente al del hombre.
- c. A: ¿Lo harás? - B: Según.

excepto도 이들처럼 전치사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격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해주는 것도 교수법적 차원에서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설명처럼 보인다.⁶⁾ 실제로 excepto를 전치사로 분류해 놓은 문법서나 사전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Advanced Spanish Grammar(Marcial Prado 1997, 298), Manuel Seco 사전(RAE, 10a edición, 209)에서는 excepto를 전치사로 분류해 놓고 이들 뒤에서 1, 2인칭 단수대명사가 출현할 경우 예외적으로 주격 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Observe que los sujetos yo y tú tienen formas distintas después de las preposiciones: mí y ti. Los otros sujetos se mantienen iguales. Sin embargo, **las preposiciones entre, excepto y según toman tú y yo en lugar de ti y mí.**

excepto: 1. **preposición** que significa ‘a excepción de, fuera de’. Se pronuncia átona. Tiene la particularidad de que cuando precede a los pronombres de 1ª y 2ª persona de singular, estos no toman las formas mí, ti, sino yo, tú: Excepto tú, todos han pagado.

다시 말해 가령 한국어에서 ‘열시 열분’이 아닌 ‘열시 십분’으로 말하는 것처럼 언어 현상 중에는 논리적, 체계적으로 설명되기 힘든 부분도 많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비록 excepto가 전치사이긴 하지만 뒤에 주격 대명사가 출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종의 예외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excepto를 계속 전치사로 “옹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해야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6) excepto 뒤에 주격형태가 출현하는 것에 근거하여 excepto는 전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렇다면 excepto의 범주가 무엇인지를 학습자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이 역시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접속사나, 부사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에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접속사나 부사의 모습이나 기능과는 좀 달라 보일수도 있어서 설명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법적 차원에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교강사들 중에는 이런 점 때문에 편의상 excepto를 전치사로 설명해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교수법적 차원에서 의 효율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다.

(2) El profesor elogió a todos los alumnos, excepto {a mí/ *yo}

‘선생님께서 다른 모든 학생들은 칭찬하고 나만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문장을 말할 경우에는 위의 예에서 보듯이 yo가 아닌 a mí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만일 앞서 (1)과 같은 예문에서 excepto 뒤에 주격대명사 yo가 출현하는 현상을 전치사 excepto의 예외적 용법으로 인정한다면 (2)와 같은 예문에서 yo가 아닌 a mí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도 또 다른 예외로 인정해야만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필자로 하여금 excepto가 전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더욱더 품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cepto가 전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좀 더 많은 자료 검토를 통해 excepto의 범주적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한편, 필자가 살펴본 모든 문법서에 따르면 menos, salvo는 excepto와 의미적, 통사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excepto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menos와 salvo에도 같은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⁷⁾

7)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excepto, menos, salvo 중에서 excepto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스페인 출신 원어민에 따르면 스페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menos를 더 많이 사용하고 excepto는 격식을 갖춘 문어체에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salvo는 excepto보다 더욱 더 격식을 갖춘 글에 사용된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excepto를 다른 두 어휘 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용해온 영어 except와 excepto간의 형태적, 의미적, 유사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영어 except와 스페인어 excepto는 둘 다 뒤에 어떤 유형의 범주 출현도 다 허용한다는(cf. (17), (19)) 점에서 통사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다만, 스페인어 excepto 뒤에 시제절이 출현할 경우 보문소 que의 출현이 요구되지만 영어 except 뒤에서는 that이 탈락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 (i) a. Se lo consiento todo, excepto *(que) fume.
- b. We'd go, except (that) it's too far.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이유는 excepto와 except 간의 범주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보문소 탈락 허용 여부와 관련한 두 언어 간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는 보문소의 탈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전치사로서의 가능성

사실 *excepto*를 전치사로 볼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기는 하다. 가령, 명사나 시제절을 보어로 취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전형적인 전치사들처럼 비강세성(atonicity)을 지니고 있다는 점(cf. Alarcos Llorach 1994, §282) 그리고 보어 없이 홀로 출현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1)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excepto* 뒤에 출현하는 1, 2인칭 단수 대명사가 사격형(oblique case)이 아닌 주격형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excepto*를 전치사로 분류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페인어 문법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몰랐던 것일까? 당연히 예전부터 그들도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예를 들어 Bello(1847, §1184-1188), Pavón(1999, 587)은 *excepto*를 불완전 전치사(imperfect preposition)로 규정하고 있고 Alarcos Llorach (1994, §282)도 전치사이지만 진정한 전치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⁸⁾

한편, Bello(1847), Bolinger(1957)는 *excepto*가 불완전 전치사인 이유를 *excepto*의 어원에서 찾는다. *excepto*의 기원은 라틴어의 과거분사 *exceptus*인데 오늘날 동사 *exceptuar*의 과거분사형 *exceptuado*가 자신의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excepto*도 원래는 자신의 뒤에 출현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어미가 변화하는 분사였다.

-
- (ii) a. Creo *(que) Juan lo hizo.
 - b. I believe (that) John did it.

한편, 필자가 살펴본 대부분의 영어 문법서 및 문법 설명 사이트에서는 *except*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출현하면 전치사로 기능하고 뒤에 절이 출현하면 접속사로 기능한다고 본다(cf. Quirk et al. 1985).

- 8) Alarcos Llorach(1994, §282)는 *excepto*를 형용사에서 전치사로 전환된 범주로 본다.
 Más dudoso es el carácter de ciertos **adjetivos**, también inmovilizados en masculino singular, como *excepto*, *salvo*, *incluso*, y los cuantificadores *más* y *menos*. Si bien adoptan la atonicidad de las preposiciones y constituyen con el sustantivo a que acompañan un adyacente circunstancial **no son propiamente preposiciones**.

(3) Llamo yo aquí letras consonantes a todas las del ABC, **exceptas** las cinco vocales.

[Pedro de Alcalá, Arte ligeramente saber la lengua arábiga; tomado de Cuervo, n. 143] (Pavón 1999, 590)

이렇게 17세기까지 사용되어져 오다가 어미변화가 중단되면서 그리고 그 사용처가 절대구문(absolute construction)으로만 한정되면서 전치사의 외형을 취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범주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excepto 뒤에 주격 인칭대명사가 나타나는 현상은 미완성 범주 전환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절대구문에서는 과거분사 뒤의 인칭대명사가 주격형을 취하기 때문에 excepto 뒤에서 인칭대명사가 주격형을 취하는 현상도 고대 스페인어의 절대구문에서 excepto가 과거분사로 쓰였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a. Muerto tú, no quisiera seguir viviendo.

b. Una vez establecida tú/ella en París, sería cosa de vender esta casa.

c. Aconsejada tú por tus padres, seguro que todo saldrá bien.

(Fernández Leborans 1995, 370)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설명 역시 한계에 부딪치는 듯하다. 왜냐하면 excepto 뒤에 출현하는 인칭대명사가 주격형만을 취한다면 위의 설명이 유효할 수 있겠지만 앞서 (2)의 예를 통해 지적했듯이 excepto 뒤에 ‘a+사격형(a mí, a ti)’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cepto를 전치사로 볼 경우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2009[manual], §16.2, 16.2.1f, 31.6.3c, 이하 NGLÉ), Pavón(1999, 588) 등에 따르면 excepto는 전형적인 전치사들과 달리 관계구문, 분열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5) vs. (6), (7) vs. (8)).

(5) Juan es el chico con el que María irá a la fiesta.

(6) *Juan es el chico excepto el cual irán todos a la fiesta.

(7) Es con María con quien quiero ir a la fiesta.

(8) *Es excepto Juan excepto el cual irán todos a la fiesta.

뿐만 아니라 Chomsky(1977)가 관계절은 Q_u -이동을 포함하는 구조라고 주장한 이래 이러한 분석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excepto가 관계절, 분열구문에 사용될 수 없다면 Q_u -의문문 형성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필자가 원어민에게 물어본 결과 실제로 excepto는 Q_u -의문문을 형성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 또한 다른 전치사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만약 excepto를 전치사로 볼 경우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9) ¿Con quién has hablado?

(10) *¿Excepto quién irán todos a la fiesta?
(Vega Labanda(p.c))

또한, NGLE(§31.6.3c)에 따르면 스페인어에서 두 전치사의 연속적 출현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에 아래에서 보듯이 excepto 뒤에는 어떠한 유형의 전치사도 출현할 수 있다.

- (11) a. María se lleva bien con todos, excepto conmigo.
 b. He viajado por todos los países asiáticos, excepto por Corea del Norte.
 c. He comprado regalos para todo el mundo, excepto para mi hermana.
 d. Juan habló de todo, excepto de sus padres.

따라서 만약 excepto가 전치사라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⁹⁾

9) 그런데 필자가 원어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excepto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전치사의 종류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전치사 뒤에 또 다른 전치사가 출현하는 것을 찾아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차이점 외에도 필자는 세 가지 차이점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성 3인칭 대명사(neuter third-person pronoun) *ello*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전치사 뒤에 출현한다.¹⁰⁾

- (12) a. Es tónico y por *ello* se escribe con tilde.
 b. Prefiero no hablar de *ello*.
 c. De acuerdo con *ello*.
 d. Pensaré en *ello*.

그런데 스페인 출신 원어민에 따르면 *excepto* 뒤에 *ello*가 출현하게 되면 문법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excepto*가 전치사라면 왜 (13)이 비문인지 설명하기 힘들게 된다.

- (13) Puedo hacerlo todo por ti, *excepto* {*eso/ *ello*}

둘째, 전치사구는 부사나 부사적 표현에 의한 수식을 허용하는 반면에 ‘*excepto* + 보어’는 이러한 유형의 수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 (14) a. Llegó *casi* hasta la puerta.
 b. Te están esperando por lo menos desde las nueve.

- (i) a. Voy a por los niños.
 b. Aprender un idioma es algo bien difícil de por sí pero
 c. No había camino pero pasamos por entre las ramas de los árboles.
 d. Entonces salió de entre las cortinas para darle una sorpresa.
 e. Todos tenemos obligaciones para con nuestros padres.
 f. El ratón encontró el queso por detrás del refrigerador.
 g. Una cucaracha salió de entre toallas.
 (Vega Labanda(p.c))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excepto* 뒤에 전치사가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excepto*를 전치사와 구분지우는 강력한 경험적 증거는 아니라고 봐야할 것이다.

10) 주로 전치사 뒤에 사용되지만 *ello*가 문장의 주어로 쓰일 수도 있다.

- (i) Habitó un siglo en la Ciudad de los Inmortales. Cuando la derribaron, aconsejó la fundación de otra. Ello no debe sorprendernos. (Butt and Benjamin 1988, 74)

- (15) a. *Todos fueron a la fiesta, {casi/por lo menos} excepto tú.
 b. *Hago ejercicio todos los días, {casi/por lo menos} excepto cuando hace frío.

셋째, 전치사 뒤에 부사나 부사구는 출현할 수 없지만 excepto 뒤에서는 출현이 가능하다.

- (16) Puedo hacerlo de todas maneras, excepto despacio.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전치사들과 excepto 간의 통사적 차이점을 근거로 필자는 excepto는 전치사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짓기로 한다.

III. 등위접속사로서의 가능성

1. 등위접속사로서의 가능성

excepto의 범주를 전치사로 보기 어렵다면 도대체 excepto의 범주는 무엇일까?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Bello(1847, §1184-1188)는 excepto를 불완전 전치사로 보면서도 아래 예에서 보듯이 excepto가 “elementos análogos”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접속사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

- (17) a. Todos, excepto uno, fueron sentenciados a muerte.
 b. A nadie se mostró severo, excepto a los homicidas.
 c. Con todos se usó de indulgencia, excepto con los que habían turbado la tranquilidad pública.
 (Bello 1847, §1188)

위의 예에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 Bello가 말하는 “elementos análogos”

11) Bello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excepto를 불완전 전치사이면서 동시에 접속사로 보았다는 것은 excepto의 범주를 한 마디로 꼭 집어 말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란 문법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을 가리키며 범주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문법 범주(DP/QP, PP)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등위접속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Bello가 말하는 접속사란 등위접속사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이다.¹²⁾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아래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등위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은 원칙적으로 문법적 범주가 서로 동일하다.

- (18) a. Juan lee [DP novelas] y [DP poemas]
 b. María es [AP simpática] y [AP guapa]
 c. Pedro lo movió [AdvP despacio] y [AdvP cuidadosamente]
 d. Me gusta hablar [PP de la cultura española] y [PP de la cultura mexicana]
 e. Miguel dice [CP que Juan tiene novia] y [CP que va a casarse este verano]
 f. Para hablar bien español es importante [TP leer libros] y [TP ver películas]

흥미롭게도 *excepto* 앞에서 전체를 지칭하는 요소와 *excepto* 뒤의 예외를 가리키는 요소의 범주도 동일하다.¹³⁾

12) *pero*, *sino*에 대해 ‘배제 역접 접속사(exclusive adversative conjun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excepto*도 비록 과거분사에서 기원한 단어지만 이들과 동일한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cf. <http://html.rincondelvago.com/conjuncion.html>)

13) 등위접속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주를 지닌 요소들을 연결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가령, 범주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는 등위접속이 가능하다(cf. Camacho 1999; 양승관 2010). 예를 들어 아래 (ia)에서 AP(*triste*)와 PP(*de mal humor*)는 서로 다른 범주지만 주어(*yo*)에 대한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i) a. Estoy triste y de mal humor.
 b. Tengo una caja negra y de forma extraña.
 c. Juan camina despacio y con mucho cuidado.

마찬가지로 *excepto*의 앞, 뒤에서 대조되는 두 요소(전체 對 예외)의 범주가 다를 수도 있다.

(ii) a. Me gusta todo tipo de música, excepto clásica.
 b. Se alimenta solo, excepto en algunas cosas como cortar la carne.
 c. Lo tolero todo excepto que se rían de mí.

- (19) a. Han cantado todos, excepto Roberto.
 b. Ha hablado con todos, excepto con Juan.
 c. Miró a todos los chicos, excepto a mí.
 d. Ha vivido en toda América, excepto en Chile.
 e. Ha comprado regalos para todo el mundo, excepto para Lola.

이처럼 전형적인 등위접속사가 출현하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excepto가 출현하는 문장에서도 범주가 동일한 요소들이 excepto의 앞, 뒤에 출현한다는 사실은 excepto를 y, pero 등과 같은 등위접속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하다.

게다가 excepto가 등위접속사라면 앞서 1장에서 (1), (2)의 예를 통해 excepto를 전치사로 보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excepto 뒤에 주격형 대명사가 출현하는 현상과 a mí, a ti와 같은 ‘a + 사격형’이 출현하는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아래에서 보듯 등위접속사는 접속되는 요소가 무엇이나에 상관없이 접속되는 요소들이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동일하다면 이 요소들을 얼마든지 연결시켜줄 수 있다.

- (20) a. Ella y yo debemos hacerlo juntos. (주어)
 b. El amor nos une a ti y a mí. (직접목적어)
 c. Pedro nos dio un regalo a ella y a mí. (간접목적어)

아래 (1), (2)를 살펴보면 excepto의 앞과 뒤에서 전체와 예외를 가리키는 요소들의 문장성분((1)은 주어, (2)는 직접목적어)이 동일하다.

- (1) Todos salieron del aula, excepto {yo/ tú} (주어)

- d. Excepto torear, hizo de todo.
 e. No hay nada que hacer, excepto esperar.
 ((d), (e) from NGLÉ 2009, §622)

excepto가 등위접속사라면 (iia)가 정문이 되는 이유도 QP ‘todo tipo’와 AP ‘clásica’가 모두 명사 música를 수식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El profesor elogió a todos los alumnos, excepto a mí. (직접목적어)

따라서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본다면 (1)에서는 excepto 뒤에 주격형이 출현하고 반면에 (2)에서는 ‘a + 사격형’이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 통합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등위접속사로 볼 때의 문제점

이처럼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분석할 경우 excepto를 전치사로 보는 분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분석 역시 여러 가지 경험적 문제점에 직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전형적인 등위접속의 경우 접속을 이루는 요소들 중 하나가 앞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비문이 초래된다. 소위 등위구조 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¹⁴⁾ 효과를 보여준다.

- (21) a. He comprado [un libro y una revista]
 b. *¿Qué_i has comprado [_ti y una revista]?
 c. *¿Qué_i has comprado [un libro y _ti]?

만약 excepto도 등위접속사라면 등위구조 제약을 준수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듯이 등위구조 제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22) a. Irán a la fiesta todos, excepto Pedro.
 b. ¿Quiénes_i irán a la fiesta _ti excepto Pedro?
 (Jaime Aguiló(p.c))

만일 excepto가 등위접속사라면 전형적인 등위접속사와 달리 등위구조 제약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Juan y Pedro llegaron a tiempo’와 같은 예문에서 Juan, Pedro 그리고

14) In a coordinate structure, no conjunct may be moved, nor may any element contained in a conjunct be moved out of that conjunct(Ross 1967, 88).

접속사 *y*가 모두 참여하여 하나의 대형식(代形式) *ellos*로 대체될 수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등위접속에서는 등위접속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합쳐서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todos*, *tú* 그리고 *excepto* 중에서 *todos*를 제외하고 *excepto*와 *tú*끼리만 별도의 단위를 이루어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등위접속과 차이를 보인다.¹⁵⁾

- (23) a. Todos, excepto tú, creen en las hadas.
 b. Todos creen en las hadas, excepto tú.
 c. Excepto tú, todos creen en las ha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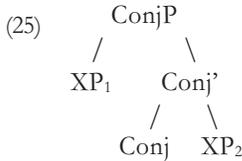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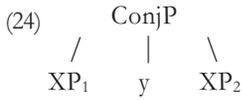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은 등위접속이 (24)와 같은 삼분지 구조(ternary structure)가 아니라 (25)와 같은 이분지 구조(binary structure)를 지닌다고 보는 분석(cf. Johannessén 1998, Bosque and Gutiérrez-Rexach 2009, Kayne 1994, Munn 1993, Zhang 2006)을 수용하면 회피될 수 있는 사항이다.¹⁶⁾

15)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 (RAE, §1.2.7)에서는 *excepto* 앞에 명시적으로 콤마를 적어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 역시 *excepto*와 그 뒤의 요소가 하나의 구성성분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6) 등위접속의 구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삼분지 구조보다는 이분지 구조가 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다(cf. Zhang 2006; Bosque and Gutiérrez-Rexach 2009, etc.).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언급해 보자. 첫째, Bosque and Gutiérrez-Rexach (2009, 124, 730)에 따르면 누군가가 ‘Ha llegado Juan’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그 말을 되받아서 ‘Y María’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과 ‘Ha llegado Juan, y María, y Luisa, y Pedro’ 등과 같이 일련의 연결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Pedro가 집에 없을 경우 화자가 ‘¿Y Pedro?’라는 표현을 통해 Pedro가 어디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든다. 둘째, 어떤 두 요소가 하나의 구성성분 혹은 단위를 형성하는지를 알아보는 좋은 테스트 방법 중 하나는 둘을 하나의 대형식(代形式)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영어와 스페인어에서 ‘and + 명사’, ‘y + 명사’는 각각 *etc*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도 등위접속사와 그 뒤의 요소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형성한다는 증거가 된다(cf. Zoerner 1995).

- (i) a. Aquí venden acelgas, lechugas, tomates, y patatas.
 b. Aquí venden acelgas, lechugas, tomates, etc.
 c. *Aquí venden acelgas, lechugas, tomates, y etc.

한편, 필자가 보기에 스페인어 소유관계사 *cuyo*가 보여주는 일치 현상 역시 등위접속이 이분지 구조임을 지지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cuyo* 뒤에 등위



즉, (25)의 이분지 구조를 수용하면 (23)에서 todos를 제외하고 excepto와 tú끼리만 별도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23)에서 본 것처럼 excepto와 그 뒤의 요소는 함께 문두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NGLE(2009, manual 31.6.3e)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전형적인 등위접속사는 접속사와 두 번째 접속요소(conjunct)가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여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26) a. Juan y Pedro.
 b. *Y Pedro, Juan.

- (27) a. Dejó de llover y ellos volvieron a jugar.
 b. *Y ellos volvieron a jugar dejó de llover.

접속된 명사구들이 출현할 때 cuyo는 첫 번째 명사와만 일치할 이룬다. 그 이유가 cuyo는 자신과 구조적, 계층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요소에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삼분지 구조 보다는 (25)와 같은 이분지 구조가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ii) Una mujer cuyas manos y pies estaban quemados por el sol.
 (Butt and Benjamin 1988, 383)

물론 등위접속 구조에 대한 이분지 구조가 분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논의는 Borsley(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형적인 등위접속사가 자신의 뒤에 출현하는 요소와 함께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여 앞으로 이동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쇄는 최대투사 혹은 핵 이동해야한다는 Chomsky(1994, 1995:253)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26b), (27b)가 틀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즉, 등위접속의 구조와 관련하여 (25)와 같은 이분지 구조를 수용한다면 (26b), (27b)에서 등위접속사와 그 뒤의 요소가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중간투사(intermediate projection) Conj'의 이동이다. 그런데 연쇄는 최대투사 혹은 핵 이동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이동은 연쇄이동에 관한 조건을 위반하여 틀린다고 설명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23c)를 비문으로 잘못 예측하는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만일 *excepto*가 등위접속사라면 앞으로 이동한 *excepto tú* 역시 중간투사의 이동이므로 연쇄이동에 관한 조건을 위반하여 틀려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¹⁸⁾

뿐만 아니라 앞서 (23a, b, c)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excepto*는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등위접속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또한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약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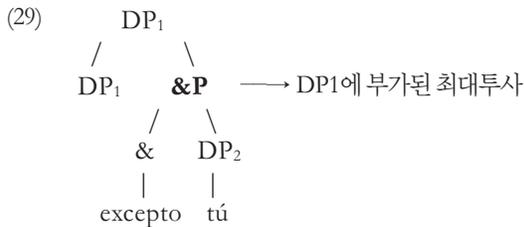
- (28) a. Han venido Juan y Roberto a Pusan.
 b. *y Roberto, han vendio Juan a Pusan.
 c. *Juan, han venido, y Roberto, a Pusan.
 d. *Juan han vendio a Pusan, y Roberto.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보는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excepto*와 그 뒤의 요소가 함께 통사적 단위를 이루어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사실

17) 이러한 설명은 앞서 2장의 (6), (8), (10)에서 보았듯이 전형적인 전치사들과 달리 *excepto*가 의문사와 함께 앞으로 이동하지 이유를 연쇄이동에 관한 조건 위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8) Brucart(1999, 2833)는 *excepto*가 문두에 출현할 수 있는 사실을 고대 스페인어에서 *excepto*가 절대구문에서 사용되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을 설명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기는 하다. 등위접속 구조를 부가 구조(adjunction structure)로 분석하는 Munn(1993)의 제안(adjunction analysis of coordination)을 수용하면 이를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아래에서 보듯이 Munn은 등위접속을 등위접속사(&로 표시)와 두 번째 접속요소(DP₂)가 병합하여 최대투사를 형성한 다음 첫 번째 접속요소(DP₁)에 우향 부착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 구조는 등위접속사와 두 번째 접속요소가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25)의 이분지 구조와 동일하나 최대투사로서 첫 번째 접속요소(DP₁)에 부착된다는 점에서 (25)의 구조와 차이가 난다. 위의 구조에서는 등위접속사와 두 번째 접속요소가 병합하여 최대투사를 이루므로 (23c)에서 *excepto tú*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즉, *excepto tú*의 이동은 최대투사이동이므로 연쇄이동에 관한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P는 DP₁에 부가된 것이므로 *excepto*와 그 뒤의 요소가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부가어가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로운 사실과 연관 지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30) a. Juan y Pedro, cuando dejó de llover, volvieron a jugar al fútbol.
 b. Cuando dejó de llover, Juan y Pedro volvieron a jugar al fútbol.
 c. Juan y Pedro volvieron a jugar al fútbol, cuando dejó de llover.

그러나 Munn이 제안한 (29)의 구조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26b), (27b)를 문법적인 문장으로 잘못 예측하게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이 구조에 따르면 등위접속사와 그 뒤의 접속요소는 최대투사를 이루므로 'Pedro y Juan'에

서 ‘y Pedro’가 최대투사로서 앞으로 이동한 결과 도출된 ‘*Y Pedro, Juan’이 정문이 되어야할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비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취급하는 한 등위접속에 대한 어떠한 분석을 수용하더라도 (23c)와 (26b)/(27b)간의 대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3. 등위접속사로 볼 때의 추가적인 문제점

필자는 추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볼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등위접속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주끼리의 연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래 예문의 비문법성은 각기 다른 범주 즉, IP와 CP가 연결된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31) *[IP Juan escuchó música] y [CP que Pedro vio la televisión]

그런데 *excepto*의 경우는 IP와 CP가 연결되더라도 정문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¹⁹⁾

- (32) a. [IP No estrenaré mi nuevo paraguas], *excepto* [CP que llueva]
 b. [IP Te quiero], *excepto* [CP cuando te enojas]
 c. [IP Sale todos los días], *excepto* [CP si llueve]

19) 역접접속사(adversative conjunction)로 분류되는 *sino*는 CP와 CP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IP와 CP간의 연결도 허용한다((ib)). 이런 점에서 *excepto*와 *sino*는 유사하다.

- (i) a. No te dije [CP que me llamas], *sino* [CP que me visitarás]
 b. [IP No salí], *sino* [CP que me quedé en casa]

범주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sino*도 *excepto*처럼 자신의 앞뒤에서 대조를 이루는 요소들의 기능이 동일하다.

- (ii) a. No fue mi hermano, *sino yo*, quien lo hizo.
 b. No quiero a nadie, *sino a ti*.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둘을 동일한 범주로 보기 힘든 이유는 *excepto*와 달리 *sino*는 자신 뒤의 요소와 함께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iii) a. No es tonto, *sino demasiado inteligente*.
 b. **Sino demasiado inteligente*, no es tonto.

만약 *excepto*가 등위접속사라면 IP와 CP가 등위접속된 (31)의 비문법성을 감안할 때 IP와 CP가 연결된 (32)도 비문이 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는 정문이라는 사실은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간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물론 (32)의 문법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가령, 시제절의 T가 가진 phi-자질은 국면핵 C로부터 물려받는다(Chomsky(2008)의 자질계승가설(feature inheritance hypothesis)을 감안한다면 *excepto* 앞에 출현하는 절은 IP가 아니라 공(null) C를 핵으로 하는 CP이며 따라서 (32)가 정문인 이유는 동일한 범주(CP와 CP) 간의 연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비문인 (31)도 첫 번째 절을 IP가 아닌 CP로 봐야하고 따라서 CP와 CP간의 등위접속으로 정문이 되어야할 것으로 잘못 예측된다. 결국 (31), (32)에서 첫 번째 접속요소를 CP로 보든 IP로 보든 그 어떤 것을 채택하더라도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취급하는 한 두 예문의 문법성 대조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아래에서 보듯이 시제 종속절끼리의 등위접속이 이뤄지는 경우 보문소 *que*가 첫 번째 접속요소 앞에는 의무적으로 출현해야만 하지만 두 번째 접속요소 앞에는 탈락이 허용된다.

- (33) a. Juan dice [que Antonio es tonto] y [que nadie lo cree]
 b. Juan dice [que Antonio es tonto] y [ϕ nadie lo cree]

이와 반대로 보문소 *que*가 첫 번째 접속요소 앞에서는 탈락되고 두 번째 접속요소 앞에서만 출현할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 (34) *Juan dice [ϕ Antonio es tonto] y [que nadie lo cree]

반면에 *excepto*의 경우는 뒤에 시제절이 출현할 때 *que*의 출현이 반드시 요구된다. 만약 *excepto*가 등위접속사라면 (33b)와 (35b)의 대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 (35) a. Juan dice [que irá a la fiesta], *excepto* [que esté muy ocupado]
 b. *Juan dice [que irá a la fiesta], *excepto* [ϕ esté muy ocupado]

셋째, 전형적인 등위접속사 *y*, *pero*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접속요소는 완전한 형태의 절이고 두 번째 접속요소로는 명사/대명사만 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36) a. *[Juan fue a la fiesta] pero [Miguel].
 b. *[El profesor les dio un regalo a sus alumnos] pero [a su hijo]

대신 두 번째 접속요소에 생략이 허용되려면 *no*, *sí*, *también*, *tampoco*와 같은 소위 극성요소(polarity item)의 출현이 요구된다.

- (37) a. Juan fue a la fiesta pero Miguel, no.
 b. Juan no le dio dinero pero a mí, sí.

- (38) a. Miguel estudia chino y yo, también.
 b. A Pedro no le gusta el chorizo y a mí, tampoco.

그러나 *excepto*는 앞에는 시제절이 출현하더라도 뒤에 명사구나 전치사구만 출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39) a. [_{IP} Han venido todos], excepto [_{DP} Juan].
 b. [_{IP} Juan besó a todas las niñas], excepto [_{PP} a mí]

또한 *excepto*는 다른 등위접속사와 달리 *no*, *sí*와 같은 극성요소의 출현을 허용치 않는다.²⁰⁾

이러한 차이점 역시 *excepto*가 등위접속사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40) a. *Han vendido todos, excepto Juan, no.
 b. *Nadie quiere hacerlo, excepto yo, sí.

넷째, 전형적인 등위접속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접속요소가 명시적으로 출현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20) 이는 *excepto* 안에 이미 의미적으로 *no*, *sí*에 상응하는 자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즉, *excepto*를 *pero*+{*no/sí*}의 문자화(spell out)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1) Juan trabaja *(de día) y de noche.

반면에 *excepto*의 경우는 *excepto* 앞에 전체를 가리키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출현하지 않더라도 정문이 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 역시 *excepto*가 등위접속사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42) a. Juan trabaja (todos los días de la semana), *excepto* los domingos.
 b. El supermercado está abierto (todos los días) de 9 a 5, *excepto* los días festivos.
 c. Paseo por el parque (todos los días), *excepto* hace frío.
 d. Permaneció en su despacho (todo el día), *excepto* para ir al servicio.
 e. No dieron muchos regalos (a los presentes), *excepto* a los niños.
 ((e) from Cifuentes 2002, 36; Pavón 1999, 591)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분석할 경우 *excepto* 앞의 전체를 가리키는 요소와 *excepto* 뒤의 예외를 가리키는 요소가 보여주는 범주적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긴 하지만 III.1과 III.2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제안: *excepto*는 부가어절을 이끄는 보문소

II, III장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excepto* 범주를 전치사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적인 문제에 부딪치며 그 대안으로 대두된 등위접속사 범주로 보더라도 역시 여러 가지 경험적 문제에 직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excepto*의 범주적 정체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excepto*가 부가어절(*adjunct clause*)을 이끄는 보문소(혹은 종속 접속사)이며 이 부가어절은 주절에 부착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해보도록 하겠다.

Q1) *excepto*가 부가어절을 이끄는 보문소라면 *excepto* 뒤에 절이 아닌 DP, PP 등과 같은 범주가 출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cf. (17), (19))

A) 부가어절을 이끄는 보문소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절이 아닌 DP, PP와 같은 범주의 출현은 아래에서 보듯이 *excepto*가 이끄는 절 내부에 이동과 PF-삭제가 적용된 결과임을 주장하고자 한다(cf. Merchant 2002).

(43) Han bailado todos, excepto yo.

—> Han bailado todos, excepto [*yo*; [~~he bailado~~ *t*]]
(Move+PF-deletion)

(44) a. Teresa ha hablado con todos, excepto con Juan.

—> Teresa ha hablado con todos, excepto [*con Juan*; [~~ha hablado~~ *t*]]
(Move+PF-deletion)

b. Besó a todas las niñas, excepto a mí.

—> Besó a todas las niñas, excepto [*a mí*; [~~me besó~~ *t*]]
(Move+PF-deletion)

더 나아가 *excepto* 뒤에 어떤 유형의 범주도 출현할 수 있는 이유도 이동과 PF-삭제가 적용된 결과다. 결국 *excepto* 앞과 뒤에서 전체를 가리키는 요소와 예외를 가리키는 요소 간에 나타나는 범주적 동일성이나 문법 기능적 동일성은 이동과 PF-삭제 조합의 결과인 셈이다.

Q2) *excepto*가 이끄는 부가어절 내에서 이동과 PF-삭제가 일어난다면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스페인어에서 주어가 초점(*focus*) 해석을 받으면 동사 후 위치(*postverbal position*)에 출현하고 주제(*topic*) 해석을 받으면 동사 전 위치(*preverbal position*)에 출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45) a. A: ¿Quién ha roto la maceta? - B: La maceta la ha roto Juan.
focus

b. A: ¿Qué ha roto Juan? - B: Juan ha roto la maceta.
topic

단, 초점이 동사 전 위치에 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Zubizarreta(1999:4239)에 따르면 이 때는 초점에게 대조적 해석(*contrastive interpretation*)이 부여된 경우다.

(46) a. A: Juan compró el periódico.

Q4) 앞서 2장에서 *excepto*를 전치사로 보기 힘든 이유로 제시한 근거 중의 하나가 *excepto*는 *Qu*-의문문이나 관계 구문 형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excepto*가 부가어절을 이끄는 보문소라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A) ‘¿Con quién has hablado?/ La chica con quien has hablado’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전치사는 *Qu*-이동을 선도할(*ped-pipe*) 수 있고 등위접속사도 ‘¿Y qué has dicho?’에서 보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Qu*-이동을 선도할 수도 있으나 보문소가 *Qu*-이동을 선도하는 사례는 없다. 따라서 *excepto*를 전치사로 보는 분석은 *excepto*가 *Qu*-이동을 선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부가어절을 이끄는 보문소로 보면 *Qu*-의문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뿐만 아니라 *excepto*가 전치사가 아니라 보문소라면 앞서 (13)에서 중성 3인칭 대명사 *ello*가 *excepto* 뒤에 출현할 수 없는 이유도 설명하기 쉬워진다. 왜냐하면 *ello*는 주로 전치사 뒤에서만 출현하는 특성을 지닌 요소이기 때문이다.

Q5) *excepto*가 부가절을 이끄는 보문소이면 ‘Sale todos los días, *excepto* si llueve’, ‘No estrenaré mi nuevo paraguas, *excepto* que llueva’와 같은 문장은 보문소 뒤에 또 보문소가 출현하는 경우가 되는 셈인데 그것이 가능한가?

A) 그렇다. 아래에서 보듯이 보문소 뒤에 보문소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2005, conjunción ‘que’ §2.2.2)에 따르면 두 보문소의 연속적 출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²¹⁾²²⁾

[...] es gramaticalmente impecable la emisión conjunta del que comparativo y el *que* introductor de la subordinada.

21) 다만 (47c-f)처럼 동일한 소리의 연속적 출현이 유발하는 부조화음(*cacophony*)을 피하기 위해 두 보문소 사이에 허사 ‘no’를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i) Mejor es eso **que no que** a uno lo ignoren.

22) 익명의 논평자분이 전형적인 전치사도 *excepto*처럼 *que*로 시작되는 시제절을 보어로 취할 수 있으므로(예: *para que*, *desde que*, *sin que*, *hasta que*, etc.) 그렇다면 전형적인 전치사들도 *excepto*처럼 보문소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전형적인 전치사는 명사/대명사 및 시제절/비시제절을 이끈다는 점에서 *excepto*와 동일하지만 1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격 대명사의 출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excepto*와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 (47) a. Nos pregunta que si nos gusta la exposición.
 b. Un día me dijo que si quería ir a la Liga del Cauca.
 c. Parece más positivo que él exista que que no exista.
 d. Es mejor que salgas que que te quedes en casa.
 e. Tengo más cosas que alabarte que que criticarte.
 f. Hay más que perder que que ganar.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 2005, conjunción ‘que’ §2.2.2)

5. 결론

대다수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excepto* 뒤에 명사가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excepto*를 전치사로 인식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스페인어 사전과 문법서에서도 *excepto*를 전치사 혹은 전치사와 비슷한(preposition-like)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Todos han llegado a tiempo, excepto {tú/*ti}*’의 예에서 보듯이 *excepto* 뒤에 1, 2 인칭 단수 대명사가 출현할 경우 자격이 아닌 주격형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excepto*가 전치사 범주에 속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xcepto* 뒤에 주격형이 출현하는 사실을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해야만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물론 언어 현상이란 것이 체계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하나 짚은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Mi profesor ha aprobado a todos, excepto a mí*’의 예에서 보듯이 *excepto* 뒤에 주격형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은 *excepto*가 전치사라는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야할 사항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excepto*가 전치사가 아닐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xcepto*가 전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요소의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전치사의 대안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등위접속사이다. 가령 ‘*Han ido a la fiesta todos, excepto tú*’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excepto* 앞에 전체를 가리키는 부분과 *excepto* 뒤에 예외를 가리키는 요소(*todos* vs. *tú*)의 문법 범주 혹은 기능(동사 *ir*와 관련하여 둘 다 주어로 기능)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excepto*를 일종의 등위접속사로 본

다면 *excepto* 뒤에 주격대명사가 출현하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또한 *excepto* 뒤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범주들도 출현할 수 있는데 등위접속사가 어떠한 유형의 범주들도 다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실 역시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러 가지 자료 제시를 통해 *excepto*와 전형적인 등위접속사 사이에는 많은 통사적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excepto*를 등위접속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필자는 *excepto*를 부가어절을 이끄는 보문소(혹은 종속 접속사)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볼 경우 *excepto*의 범주를 전치사나 등위접속사로 볼 때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설명할 수 있음을 질의응답 형식의 논의를 통해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마상영(2014), 『Gramática española』, 신아사.
- 양승관(2010), 「스페인어 등위구문에서의 등위접속 요소 제약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문학, Vol. 54, No.3, pp. 59-80.
- 최중호 외.(2004), 『스페인어 문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 Alarcos Llorach, Emilio(1994),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Aragónés, L. and R. Palencia(2012),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Teoría y práctica C1-C2*, Madrid: SM
- Bello, Andrés(1847[1988]),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R. Trujillo(ed.), Madrid: Arco/Libros.
- Bolinger, Dwight(1957), “Prepositions in English and Spanish,” *Hispania*, Vol. 40, pp. 212-214.
- Borsley, Robert(2005), “Against ConjP,” *Lingua*, Vol. 115, pp. 461-482.
- Bosque, Ignacio(1980), *Las categorías gramaticales*, Madrid: Síntesis.
- Bosque, I. and J. Gutiérrez-Rexach(2009), *Fundamentos de sintaxis formal*, Madrid: Akal.
- Brucart, José M.(1999), “La elipsis,” I. Bosque and V. Demonte(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Espasa-Calpe, pp. 2787-2863.
- Burguera Sera, Joan et al.(2012), *Introducción a la gramática del español. Las categorías*

- gramaticales*, Barcelona: Universitat de Barcelona.
- Butt, J. and C. Benjamin(1988), *A New Reference Grammar of Modern Spanish*, London: Edward Arnold.
- Camacho, José(1999), “La coordinación,” I. Bosque and V. Demonte(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pp. 2636-2694.
- Cifuentes, José L.(2002), “Sobre sintagmas sustractivos: preposiciones, focalizadores y marcadores discursivos,” *Estudios de Lingüística*, No. 16, pp. 5-49.
- Chomsky, Noam.(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Chomsky, Noam(2008), “On phases,” Robert Freidin et al. (ed.),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Cambridge: MIT Press, pp. 133-166.
- Fernández Leborans, María(1995), “Sobre construcciones absolutas,”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Vol. 25, No. 2, pp. 365-395.
- Johannessen, Janne B.(1998), *Coord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Jenny(2014), “Adjoined koP in Korean Clausal Coordination: Implications for the across-the-board analy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20, No. 1, pp. 191-200.
- Matte Bon, Francisco(1995), *Gramática comunicativa del español*, Edelsa.
- Merchant, Jason(2002),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nn, Alan(1993), “Topics i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ordination structur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 Orf, Amy S.(2013), “A Closer Look at *incluso* and *excepto*,” ms., Northern Michigan University.
- Pavón Lucero, María V.(1999), “Clases de partículas: preposición, conjunción y adverbio,” I. Bosque and V. Demonte(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pp. 565-655.
- Pérez-Jiménez, I. and M-Q. Norberto(2011), “Las conjunciones exceptivas,” Akal Escandell et al. (ed.), *60 problemas de gramática*, Madrid: Akal, pp. 18-23.
- Pérez-Jiménez, I. and M-Q. Norberto(2012), “On the syntax of exceptions. Evidence from Spanish,” *Lingua* Vol. 122, No. 6, pp. 582-607.
- Prado, Marcial(1997), *Advanced Spanish Gramma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Quirk, Randolph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Longman.
- Real Academia Española(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manual)*, Madrid: Espasa-Calpe.
- Rizzi, Luigi(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Haegeman(ed.), *Elements of grammar: Handbook of generative syntax*, Dordrecht: Kluwer, pp. 281-337.
- Ross, John R.(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Zhang, Niina(2006), "On the Configuration Issue of Coordination,"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7, No. 1, pp. 175-223.
- Zoerner, Cyril(1995), "Coordination: The syntax of and P,"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 Zubizarreta, María L.(1999), "Las funciones informativas," I. Bosque and V. Demonte (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pp. 4215-4244.
- <http://html.rincondelvago.com/conjuncion.html>
- <http://www.macmillandictionary.com/dictionary/american/except>
- <http://www.grammar-quizzes.com/except.html>
- <http://www.englishgrammar.org/using-except/>
- <http://www.bbc.co.uk/worldservice/learningenglish/grammar/learnit/learnitv161.shtml>

심 상 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우편번호 330-714
pablo@dankook.ac.kr

논문투고일: 2015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19일

On the Grammatical Category of ‘excepto’

Sangwan, Shim

Dankook University

Shim, Sangwan(2015), On the grammatical category of ‘excepto’. *Revista Iberoamericana*.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grammatical category of the exceptive marker ‘excepto’. Based on the fact that nouns can appear after this particle, many Korean learners of Spanish regard it as a preposition. In addition, in most Spanish dictionaries and grammar books, it is also classified as a preposition. However, ‘excepto’ is different from typical prepositions in that when a first or second singular personal pronoun appears after this particle, the pronoun is realized not as oblique Case form but as nominative Case form. For this reason we claim that the analysis of ‘excepto’ as a preposition is not adequate. Some scholars claim that ‘excepto’ is a coordinating conjunction. Although this analysis offers a way of accounting for the reason why the nominative Case form is required after ‘excepto’, we argue that it also faces a variety of problems. Finally, we suggest that ‘excepto’ is a complementizer that introduces an adjunct clause, and show that this analysis can solve the problems that the two previous analyses face.

Key words excepto, preposition, coordinating conjunction, complementizer